

경주수·우수마 선발체계 손 본다

경주 규모·대상경주 등 조건 완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 계획 변경
연말까지 목요일 경주 진행 허용
7월엔 야간경마는 운영 중단키로



한국마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경마가 19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경주 수 확대 편성과 안정적 경주 시행, 효율적 경주자원 운영, 우수마 선발체계 조정 등 경마 시행 계획을 일정 부분 변경했다. 사진제공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경마가 19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원활한 경주 시행과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경마 시행 계획을 일정 부분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말산업 전반의 위기 속에서 경마 또한 약 4개월 간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원활한 경주마 지원 순환 체계 유지 등 말산업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경마 운영을 위해 경주 시행 규모, 대상경주 요건 등 일정 조건을 완화하고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감히 변경에 나섰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경주 수 확대 편성, 안정적 경주 시행, 효율적 경주자원 운영, 우수마 선발체계 조정 등이며 해당 변경 내용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적용된다.

먼저 경주 수를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목요일에도 경마가 진행되며, 하계 휴장 등 종전 정기적으로 휴장을 시행했던 주간에도 경마경기를 열 예정이다. 목요일에는 제주에서만 경기가 열리며, 금요일에는 부산경남 경마만 개최된다. 기존대로 토요일은 서울과 제주 경마가 진행되며, 일요일은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경마 경기가 열린다. 매년 여름에 시행됐던 야간경마는 올 7월에는 운영

되지 않는다. 8월 이후 야간경마 시행여부는 정부 방역단계 및 고객 입장규모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 후 결정된다.

한국마사회는 경주마 관계자 소득 안정 등 말산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도 발 벗고 나선다.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경마 중단에 따라 침체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경주마 출전 장려와 안정적인 경주 운영을 위해 경마상금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일부 조정한다. 순위에 상관없이 출전두수에 따라 출전만 하면 모두 지급되는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출전료를 새롭게 신설한다. 마주, 조교사, 말관리사에게 지급되던 출전장려금은 기존 9위에서 10위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기수들의 기승 횟수도 한 주당 경주 수와 기수 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

로 조정에 나선다.

대상경주는 일정을 조정하되 기존에 계획된 대상경주는 전부 열린다. 상반기 주요 대상 경주 중 하나인 코리아인터비는 8월 2일 서울 경마공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경주 시리즈 출전을 위한 예선전 개념인 챌린지 경주가 경마 휴장이 동안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대상경주 챌린지 승점 부여에 따른 편성 우선권 부여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단, 국내 톱 5 최고 상금 경주인 대통령배(11월 8일, 서울), 그랑프리(12월 13일, 서울) 출전마 선발을 위한 승점 체계인 'Road to G I 챔피언십' 운영은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연도 대표마를 선발하는 Korea Premier(코리아 프리미어) 지정 경주도 기존 6개 대상경주(코리아컵, 코리아스프린

트, Owner's Cup, KRA컵 클래식, 대통령배, 그랑프리 누적승점 상위 3위 대상 인센티브 지급)에서 Owners' Cup(오너스컵) 시행일정 연기에 따라 5개 대상경주를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말산업 순환 체계 유지와 경마 시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마제도, 일정에 있어 전제적인 조정과 변경이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며 "4개월 만에 드디어 경마가 다시 시행된 만큼 철저한 방역 체계 하에서 경주 참가를 적극 장려해 말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제도와 일정 변경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해 안정적으로 경마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2020년 하반기 마사회 장학관 입학생 모집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인 렛츠런재단이 7월 10일까지 2020년 하반기 한국마사회 장학관 입학생을 모집한다. 농업인 또는 농업인 자녀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대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마사회 장학관은 지난해 2월 개장했으며, 9개 층(10~18층)에 154명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보증금 10만 원에 월 입실료 15만 원이다.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역 근처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세어하우스 형태로 1인당 거주공간이 넓고 쾌적하다. 10층에는 식당과 독서실이 있고 18층에는 스마트 도서관, 피트니스실, 소모임실 등이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렛츠런재단 홈페이지(www.lr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렛츠런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도 기수후보생 25일 졸업식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25일 원당목장 경마교육부에서 2020년 기수후보생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생은 총 6명으로 더러브렛(4년 과정) 기수인 김덕현, 정우주, 문성혁 기수와 제주마(2년 과정) 기수인 박석, 양민재, 박재희 기수가 정식기수로서의 새 출발을 알렸다. 제주마 과정 3명은 2018년 교육 과정이 2년으로 늘어난 이후 최초로 배출된 졸업생이다. 더러브렛 과정을 거친 3명의 기수는 이미 서울 경마공원(김덕현, 문성혁)과 부산경남 경마공원(정우주)에서 수습기수로 활약 중이다. 졸업식을 치른 6명 기수들에게는 7월 1일부터 정식 면허가 부여된다. 이번 졸업식 행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내부 행사로만 진행됐으며 유관단체 및 가족 등은 초청하지 않았다. 교육성적 최우수자에게 주어지는 '한국마사회장상'은 김덕현, 양민재 기수에게 돌아갔다.

9회 말산업 국가자격 필기시험 441명 응시

제9회 말산업 국가자격 3급 필기시험이 20일 안양과 제주에서 치러졌다. 당초 5월 16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기돼 실시됐다. 이번 필기시험은 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 지도사 3급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으로, 총 441명이 응시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 2일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에 공지되며, 실기시험은 8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시험장에는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졌다. 모든 응시자와 관리인력은 문진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 시험장에 입장했고, 군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4개의 비접촉식 체온측정 라인이 운영됐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2차 체온측정도 시행했다. 정용운 기자

지용철 조교사 900승

35년간 1만번의 경주마 출전
한국경마 역대 6번째 대기록



지용철 조교사

서울 경마공원의 지용철 조교사(만 60세, 49조)가 20일 제 12경주에서 통산전적 900승을 달성했다. 한국경마 역사에서 6번째로 달성한 대기록이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교사들 중에는 서울의 박대홍

조교사와 부경의 김영관 조교사에 이어 이름을 올렸다.

경마 중단으로 인해 4달 여 기간 동안 899승에 멈춰있던 지용철 조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 경마재시작 첫날 1승을 추가했다.

1986년 조교사로 데뷔 후 35년 동안 1만 번이 넘는 경주에 경주마를 출전시킨 베테랑인 지용철 조교사는 "지금이순간", "파이

널보스" 등 우수 국산마들을 길러내 왔다. 특히 900승을 안겨준 경주마는 지난해 7월 데뷔한 3세 암말 '말키세리'다. 지용철 조교사에게 첫 코리아인터비 트로피를 안겨준 '지금이순간'의 형제마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지금이순간'의 자마 '심장의고동' 역시 올해 세계일보배 대상경주에서 우승하는 등 지용철 조교사 마방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용철 조교사는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되며 1승을 추가하는데 참 오래 걸렸

다. 그래도 900승을 달성해 기분이 좋다. 내가 잘했다기보다 마방 식구들과 마주 등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서 달성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900승 달성 소감을 밝혔다.

지용철 조교사는 1976년 기수로 데뷔한 후 1986년 조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명실상부 경마장 베테랑이다. 약 45년 동안 경마산업에 몸담고 있는 그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면 말씀도 보답해준다는 신념이 있다. 그런 믿음으로 지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야구토토 스페셜·매치 연속 발매 '풍성'

26~28일 KBO리그 대상 경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26~28일 벌어지는 KBO리그 경기들을 대상으로 야구토토 스페셜 및 매치를 연속으로 발매한다.

먼저 야구토토 스페셜 46회차는 26일 오후 6시30분 열리는 롯데-삼성(1경기)전을 비롯해 키움-KIA(2경기)전, 한화-KT(3경기)전으로 야구팬들을 찾아간다. 이어지는 47, 48회차 역시 같은 팀들간 경기로 진행되며 각각 27일과 28일 오후 4시 50분 발매 마감된다.

야구토토 스페셜의 참여방식은 2경기 4개 팀의 득점대(6개 구간·0~1, 2~3, 4~5, 6~7, 8~9, 10점 이상)를 맞히는 '더블', 3경기 6개 팀의 결과를 예측하는 '트리플'로 나뉜다. 더블은 배당률이 적은 대신 적중확률이 높기에 초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트리플은 프야

구에 정통한 고수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스페셜 게임은 우천 등의 이유로 3번 경기가 취소될 경우 더블 게임만 발행이 가능하지만, 1번 또는 2번 경기가 취소되면 회차 전체가 발매무효로 처리된다. 이 경우 해당 회차 참가자들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야구토토 매치는 26일과 27일 1개 회차씩 발행된다. 43회차는 26일 오후 6시 30분 고척스카이돔에서 펼쳐지는 키움-KIA전으로 야구팬들을 찾아간다. 44회차도 같은 팀들간 경기를 대상으로 27일 오후 4시50분 발매 마감된다.

야구토토 매치 게임은 두 팀의 홈런 유무(O·X)와 6개 구간으로 나뉜 득점대(0~2, 3~4, 5~6, 7~8, 9~10, 11+)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매 및 각종 정보는 스포츠토토 홈페이지(www.sportstoto.co.kr) 및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티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액으로 즐기는 '토토 언더오버' 20회차 발매

'소액이라 더욱 재미있는 토토 언더오버에 도전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의 인기 배당률 게임 '토토 언더오버'가 26일 오전 8시부터 20회차의 발매를 시작한다.

3000원대의 평균참여금액으로 소액문화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는 토토 언더오버는 승패를 맞히는 방식에서 벗어나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을 대상으로 5경기 또는 7경기를 선정해 홈팀과 원정팀 각각의 최종득점이 주어진 기준값과 비교해 낮은지, 높은지 등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는 배당률 게임이라 더욱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투표방식의 경우 주어진 각 팀의 최종득점이 기준값 미만이라면 언더(U), 초과한다면 오버(O)를 선택해 표기하면 된다.

이번 회차는 28일 열리는 국내프로야구 KBO리그 5경기, 국내프로축구 K리그1(1부) 2경기를 대상으로 토토팬들을 찾아간다. 자세한 일정을 살펴보면 KBO리그에선 두산-



NC(1경기)전, SK-LG(2경기)전, 롯데-삼성(3경기)전, 키움-KIA(4경기)전, 한화-KT(5경기)전이 선정됐고, K리그에선 울산-전북(6경기)전과 수원-상주(7경기)전이 뽑혔다.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 '뉴트로 토토랭킹' 이벤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을 통해 국내프로야구(KBO) 다득점 상위 3팀을 예상하는 '뉴트로 토토랭킹'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경기는 26일 오후 6시30분 열리는 한화-KT, 두산-NC, 롯데-삼성전이며, 총 6개 팀 중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3개 팀을 선택하면 된다. 득점이 같을 경우에는 홈런 수~안타수~승리팀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스포츠토토 페이스북에 따르면 1경기에선 홈팀 한화가 지난 시즌 9위(58승86패)를 기록했고, 원정팀 KT는 6위(71승71패)였다. 단, 지난 시즌 맞대결에선 양 팀이 8승8패로 팽팽했다. 2경기 두산-NC전의 경우 지난 시즌 상대전적에선 두산이 8승1무7패로 근소하게 앞섰다. 올 시즌 순위 역시 나란히 선두권을 형성할 정도로 두 팀 모두 탄탄하다. 단, 올 시즌 맞대결에선 NC가 4승2패로 우위에 있다. 3경기 롯데-삼성전은 중하위권 팀들의 맞대결이다. 올 시즌 평균득점은 원정팀 삼성이 5.14점으로 4.64점의 롯데보다 낫다. 더욱이 롯데는 올 시즌 삼성과 맞붙은 3경기에서 고차 3득점(평균 1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